“한국 전통음악, 범패 세계에 알려요”

[인터뷰] 도올 아들 김일중 씨가 옥천범음대 다니는 이유

加 브리티시컬럼비아대서 연구
에트넘 뮤지컬로지 논문작성해
어려서 불연, 봉원사 아래 자라
2020년 9월부터 범패교육받아
“수행 과정이라 생각하고 수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음악의 세계에서는 국적이 따로 없습니다. 범패 연구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소리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범패전승기관인 옥천범음대학. 신촌 봉원사에 자리한 옥천범음대학 강습실에서는 머리를 파르라니 깎은 한 청년이 스님들 사이에서 바라춤을 추고 있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을 어딘가 닮아 보이는 이 청년은 바로 도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일중 씨(41 · 사진)였다.

어색한 모습이지만 눈에서는 범패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빛났다. 김 씨(41)는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음대에서 인류음악학 전공자로 박사과정을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그가 옥천범음대에서 범패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는 “서울대 있을 때 국악 관현악곡을 써서 국악협회 관현악 축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 때 쓴 곡이 봉원사가 위치한 안산과 연계된 ‘안산 자락의 소나무 한그루’ 였다. 2006년 경 송암스님의 범패 소리에 영감을 받아 작곡을 하면서 불교음악과 범패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고 인연담을 전했다.

김 씨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국악작곡을 전공했다. 중앙대 국악과를 거쳐 서울대에서 국악을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어려서부터 유불도에 능통한 도올 김용옥 선생에 영향을 받은 김 씨는 연세대 중문과 교수인 어머니 최영애 교수와 함께 신촌 봉원사 밑에서 자랐기에 범패와 인연이 닿은 것은 필연적이었다.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인 경제 스님과는 동네 친구사이였다.



김 씨는 “아버님으로부터 어려서 불교에 관한 얘기를 들어 관심이 많았다. 집에서 산책할 때 봉원사를 거치면서 보곤 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범패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그가 영화음악과 음악인류학을 전공하면서 부터였다. 김 씨는 또 다른 석사과정으로 뉴욕에서 2년간 영화음악을 전공했다. 당시 세계음악을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서 연구하는 에트넘뮤지컬로지(ethnomusicology)에 천착하며 범패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김 씨는 “서양의 클래식보다는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소리는 무엇일까 관심이 있었고 K팝 등이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각광을 받으며 역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 음악문화 배경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범패를 배운 김 씨는 “공부를 하면서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한국음악에 대한 자기반성도 하게 된다”며 “속가친구인 경제 스님이 권하여 배우게 됐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그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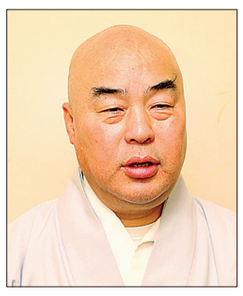
이어 김 씨는 “해외에 에트넘뮤지컬로지 차원에서 소개된 범패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나온 것이 유일무이하다시피하다. 현시대에 맞는 연구와 변화양상을 함께 살펴 논문을 낼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문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교본 등으로 배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 씨는 의지로 이를 극복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도올 김용옥 선생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월이면 캐나다로 돌아가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돌입한다는 김 씨. 바라를 양손에 든 김 씨의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범패를 배우고 이를 설행하고 전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행의 과정에서 신심도 자연스럽게 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새로운 경험이고 또 다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음악계에 범패의 가치를 새롭게 알려가겠습니다.”

천태종 제17대 종의회 의장에 무원 스님

1월 20일 원구성 후 임시 종의회
부의장은 덕해 스님 · 황세열 의원



천태종 제17대 종의회 의장에 무원 스님〈사진〉,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 의원이 선출됐다. 제17대 종의회 의원 30명은 1월 20일 도용 종정 예하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제113차 임시종의회를 열어 의장에 무원 스님,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의원,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설혜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석용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에는 갈지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의회 의장단,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총무분과 최병열, 법제분과 김장욱, 재무분과 정찬영)는 1월 25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열린 동안거 해제식에서 사령장을 받았다. 제17대 종의회 의원은 비구스님 14명 · 비구니스님 3명 · 재가불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종의회의장으로 선출된 무원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고,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종정 예하와 원로스님, 도반은 물론 사부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직무를 해나가겠다”며 “종단의 위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로나에도 학구열… 익산 불자 학업 성취

이리불교대학 30기 졸업식 개최

익산지역 유일의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30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1월 24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이경례 씨 등 16명의 불자들이 1년 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졸업생과 송동기 부학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졸업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시상, 학장 식사, 축사, 졸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학인에 대한 시상도 이어져 포교원장상은 이경례 씨, 17교구본사 주지상에는 이점남 씨, 학장상은 강계순, 임소형, 허복주, 조동례 씨, 익산사암연합회장상은 이병윤, 고미해 씨 등이 수상했다.

덕림 스님은 졸업사를 통해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에서 구국 애민에 나선 만암 스님을 기리는 다례재가 1월 27일 열렸다.

구국 애민의 선사 정신 기려

백양사 만암스님 64주기 다례재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해 국권을 빼앗기자 만암 스님은 백양사에 광성의숙을 세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스님들의 운력에 나서 피폐해진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농사와 양봉, 죽세공품, 숯굽기 등으로 사찰 대중과 주변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

스님의 구국(救國)과 애민(愛民)정신은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훗날 금호고속, 전남방직의 모태가 되는 전남여객버스, 전남베어링 공장 등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월 27일 백양사(주지 무공)에서 만암대종사(1875~1957)의 열반 64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다례재에는 백양사 원로인 성오 스님, 명공 스님과 수좌 일수 스님, 진우스님(조계종 교육원장), 무공 스님을 비롯해 문도들이 참여해 대웅전 상단불공과 축원, 행장소개, 주지 인사말, 조사전 다례재가 봉행돼 만암 스님의 깊은 뜻을 기렸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조촐하게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여러 대중스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만암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수 스님은 행장소개를 통해 “반농반선을 강조하며 매일 공동운력을 통해 ‘선불장’ 이란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공장과 회사설립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 구호에도 남다르셨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읍 일광사 ‘자비의 백미나눔’ 귀감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연꽃신도회(회장 유상분)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은 1월 2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군산 염불사 주지 행담 스님,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등 정읍시 복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쌀을 받고 더불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일광사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불교교육인가?
불교교육 길라잡이



초전법륜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의 전개과정과 특성, 의미 등을 고찰!

이송곤 지음/신국판/268쪽
값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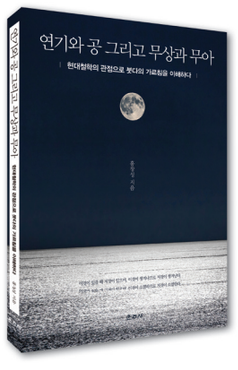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금강경, 연기법으로 보아야 제대로 읽힌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은 금강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백창우 지음/국판/184쪽
값 12,000원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미국 미네소타대학 홍창성 교수가 현대철학의 관점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
값 12,000원

감산대사의 유려하고 명료한 해설!
감산의 기신론직해



기신론의 핵심을 알기 쉽게, 특히 초심자를 위하여 문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감산덕청 해설/윤현로 역주/신국판/양장
400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